


공동체 소식



연중 제11주일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 +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성심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1요한 4,16) 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6월 맨하탄 및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6월 평협회

일시 : 6.19 (주일) 미사 후.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 복자 마더데레사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48	212	174	204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채린 소피아	정병훈 보니파시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이재혁 바오로
다음주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이재혁 바오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김명은 안젤라	박희영 카타리나 김소라 요안나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주	김명은, 한춘희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6/5	73명	411불	2,000불
정지현, 임창주, 김화년, 유병운, 현교정, 박동희, 김태중, 이영민, 김진미, 홍순익, 정준구, 차호섭. (총 12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자신의 죄를 꾸짖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앞에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하고 고백하는 다윗 임금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따른 열두 제자와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든 여인들을 본받읍시다.

성화해설

시몬의 집에서의 그리스도(디에릭 보우츠, 1440년, 베를린 국립박물관)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의 집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감히 용서를 청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여인의 죄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루카 7,50)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므로써 죄보다 믿음이 더 크고, 책망보다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12,7ㄱㄷ-10.13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답송 : 

-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 의인들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이여, 모두 환호하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2,16.19-21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6—8,3<또는 7,36-50>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쉐 마

큰 죄를 용서받은 여인처럼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도 유대인이었고,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당연히 할례와 율법과 같은 유대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활동하던 아주 이른 시기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계시를 받은 사건은 이방인도 하느님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믿음을 가져다주었습니다.(사도 10장) 문제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는 율법과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창세 15,6에서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이미 율법 없이 의로움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건은 창세 22장에서 이루어지는 할례 전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의화(義化)’는 할례와 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로마 4장).

바오로가 보기에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어 줄 뿐입니다(로마 3,20).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의 가르침을 모두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독서에 나오는 위대한 임금 다윗마저 죄를 저지릅니다. 그토록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던 다윗 임금마저도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부하를 죽음에 빠뜨리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하느님 앞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임을 자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있게 자각하고 있었고, 그런 죄스러운 자기 민족의 역사, 하지만 그런 죄인들인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성경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하느님의 은총, 곧 메시아가 오셔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리라고 생각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죄의 상황에서 우리를 빼내어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거저 내어주신 당신 아드님의 희생 덕분에 하느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나의 행실에 따라 좌우되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 바오로는 분명히 밝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행하는 행실에 따라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함부로 막살아도 하느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큰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큰 사랑으로 하느님께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복음에 나오는 여인처럼 사랑으로 하느님께 보답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살지 말고, 하느님과 화해한 하느님 자녀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해 동안 지은 농사가 너무나 잘되어 곡식이 넘쳐흐를 정도이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인이 질문했습니다. “주인님, 소출이 너무 많아 창고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자는 한참 궁리를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생각 끝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2,16-18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는 계속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농산물이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입니다. 인간은 본래 같이 나누어 먹고 함께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저장할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집을 비워도 항상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의 재물을 영원히 쌓아두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부자는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2,19-2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까마귀들을 살펴보고 하시며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곳간도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2,22-32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소유와 인생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과 나눌 줄도 모르고 자신의 재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해가 떠오르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가볍고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나의 재물이 영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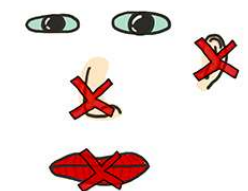
복음묵상

다 좋지만...

난 당신이 참 좋아
다 좋지만

좀 긴 코와
두툼한 입술과
좀 작은 귀는 별로야

그것 빼고는 다 좋아
정말이야
다 좋아.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루카 9,22)

- 임의준 신부